

여행의 상담자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여행상담은

김의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대표: 김창성 { 624-2227
624-2228
RES. 776-7115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oom Hoe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9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CTOBER, 1974

한인회에 면세특혜 IRS가 정식으로 허가

지난 3월부터 한인회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오던 면세특혜신청을 미 연방세무서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이를 받아드려 정식으로 허가함으로써 우리 한인회가 미연방 소득세를 내지않고도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수정, 추가보충설명, 한인회보 영문번역등 어려운 요구 조건을 다 응답하여 면세특혜 조치를 받게된 이연에는 Mr. James Kim을 비롯한 임원및 이사들의 노고가 많았다. 이로써 한인회에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낸 회원들은 연방 소득세법에 의거, Tax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다.

개천절 기념식 성대히 거행

지난 10월 5일 개천절 4306주년을 맞이 하여 한인회에서는 와싱턴 대학교 HUB 3층에서 많은 교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이날 교포사회에서 배달민족의 얼을 일깨워 주어오는 박 암선생께서 "개천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한인회 임의총회

10월 5일 와싱턴 대학교 HUB 3층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거행한 다음 곧이어 한인회 임의총회가 있었다. 이날 한인회 회칙개정을 많은 교포들이 장시간의 진지한 토의와 표결로 수정했는데 통과된 회칙개정 내용은 3면에 소개한다.

오픈 하우스

11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 오픈 하우스를 가질 예정인데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여 한인회 현황을 두루 살펴 주길 바라고 있다. 주소는 5220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05

탁구 대회

한인회 주최 제 1회 한인 탁구대회가 지난 10월 19일 와싱턴 대학교 HUB에서 열렸다.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모여 실력을 다투는 결과 단식 우승에는 김 재길씨가 영예의 트로피를 차지했고 준 우승에는 장 낙종씨와 김 제법씨가 각각 차지했고, 복식에는 김 재호, 김 재길 형제가 우승하였다.

한인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한인회 회칙 제9조에 의거 1974년도 한인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

- 아 래
1. 일시; 1974년 11월9일 토요일
 2. 장소; 와싱턴대학 HUB 3층
 3. 순서; 가. 경과보고
나. 정, 부회장및 이사선거.
다. 회관설치 위원회 임원선거.
라.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공고함.

1974년 10월 18일

한인회 회장 구 범희

1975년도 한인회 정·부회장및 이사 후보자 공고

1974년 11월9일에 실시하는 한인회 회장, 부회장및 이사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회장 후보자 — 송중내 (1명)
2. 부회장 후보자 — 안병영 (1명)
3. 이사 후보자 — 이현기 전 제상 김형진 한만섭 (이상 4명, 도착순)

1974년 10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한인회 사무소 개설

한인회 발족 7년만에 드디어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무소가 없이 임원이나 이사분들의 집으로 전전하며 회의와 토의를 하던것을 이제부터 몇몇하게 사무실을 마련하여 원활한 한인회의 운영을 도모할것 같다.

비록 자그마한 규모이지만 사무실과 30명 정도의 한인회에 관련된 각종회의와 세미나 및 교양강좌도 할수있게 되었고 교포 2세 교육을 위한 한국소개 (역사및 문화)도 접할수 있게 되었다. 또 본 사무소의 회의실을 실비로 빌려 주어 한인회 운영비에 중당기도 한다. 특히 사무실의 비품을 마련하여 준 여러분의 이름을 지상에 발표하여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한다.

CETA 프로그램에 교포혜택

연방정부가 새로운 CETA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계를 비롯한 일본, 중국, 필리핀, 사모아 등 동양계 이민들을 위한 직업알선과 직업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와싱턴주와 씨애틀시 당국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한인 상담역 (Korean Counselor)에는 김홍기씨가 수고하고 있다. 사무실 주소는 4726 Rainier Ave., So. Seattle, Wa... 전화는 725-8200이다.

골프 대회

대한무역협회 회장인 박충훈씨가 지난번 도비시에 기증한 트로피를 두고 씨애틀 지역 한인골프 동호인들은 지난 10월 19일 Jefferson Course에서 골프대회를 거행하였는데 이날 챔피언은 이규홍씨, 메달리스트에는 이현기씨가 각각 영예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시상식에 이어 골프클럽총회를 열고 임원의 임기와 핸디캡 담당부를 결정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현 회장 안병영, 부회장에 조영, 재무에 이규홍씨와 새로 선출된 핸디캡 조정 책임자 이현기씨와 함께 1975년 12월 말까지 하기도 결정했다.

